2026.9.6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성경적 재림신앙과 성경적 삶으로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후서-

다니엘 12:2-3, 데살로니가후서 3:10-13

정윤돈 목사님

*** 단12:2-3**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살후3:10-13**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헌신을 통하여 정말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절대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응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나에게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미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성취될 언약의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실천하여, 언약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여러분은 이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만 말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소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한다. 저희 어머니가 부흥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오시면 그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무 은혜가 되어서 다음에 그 부흥회가 열린다고 하면 따라가 보고 싶었다. 그런데 직접 가보면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던 것만큼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설교를 잘 전달했구나"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단 한 마디라도 포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다락방이고, 지교회가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주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면 주보의 제목이라도 붙잡아야 한다. "이번에 예배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깨달았다"라고 한 마디라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무엇을 했다'하는 자랑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심하게 맞고 깨달았다. 내가 갱신하고 거듭나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겸허한 포럼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가 아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자랑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도 오늘 나에게 갱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영화가 재미있으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이 받은 은혜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나와야 한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나도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항상 적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포럼했다. 새가족이나 초신자는 복음을 잘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복음도 소화하고 강단메시지도 소화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 특히 오늘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팔을 불고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 전체에 이 내용이 가득하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성도가 부활하고,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언약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니엘서에는 성도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다니엘 12장 2절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라고 말씀한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씀한다. 어렸을 때 누님들과 누워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한 적이 있다. 언젠가 천국에 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만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을 성공하면서 살아야 한다. 오늘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전도자로 누리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미 알게 되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죽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과 인생을 투자했지만 진리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이미 받았다. 그러므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진리와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할 일을 해야 한다. 오늘 오후에 오신다고 해도 지금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한다.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야 한다. 10대, 20대, 30대의 여러분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 그림을 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공부하고 전도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지만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마24:3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가장 정상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며 합법적으로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한다. 재림을 핑계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공부하지 않거나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나 치매가 아닌 이상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복음 안에서는 모세처럼 은퇴가 없다는 마음으로 일하다가 죽을 정도로 충성해야 한다. 공부하다가 죽고 전도하다가 죽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물론 내가 하는 노력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과 문을 열어 주신다. 내가 두드린다고 반드시 내 방식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10월에는 오랫동안 후원해 왔던 아프리카 케냐에 가려고 한다. 한 목사님이 혼자 케냐 강의를 다녀오면서 계속 같이 가자고 했다. 왜 그렇게 계속 권하는지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후원했고 NGO법인을 만들어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연결하고 7층짜리 건물도 지었다. 케냐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있고, 그중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도 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그곳에 들어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보내려고 한다.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 두 사람을 보내는 계획도 생각하고 있다. 10년 전에 케냐에 갔을 때는 이미 온 성도들이 열 명 정도 있었다. 그런데 처음 아프리카에 왔다고 좋아서 모닥불을 피워 놓고 지냈다가 열 명이 모두 말라리아에 걸려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다. 그 뒤 바로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게 선교이다. 물론 지금은 예방접종과 여러 준비를 하고 가야 한다. 다만, 선교지에서 순교까지 각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은 가야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는가? 이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다. 즉, 일하기 싫어하고 문제만 만드는 사람에게 베푸는 잘못된 도움은 중단하되, 참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게으른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 "아예 돕지 않겠다"고 해서도 안 된다. 선을 행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모두 만나게 된다. 그렇다고 선행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참된 사랑과 선행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성경적인 참된 재림신앙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즉 땅 끝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스타(Star)이다. 세상에서 잠시 인기를 끄는 한류스타나 K팝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진정한 영원한 스타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서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여동생 이름에서 유래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 카산드로스라는 왕이 알렉산더 사망 8년 후에 그 도시를 재건하면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명명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야손'과 같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이지만 훌륭한 사명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데살로니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 열정적인 나머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며 하던 일도 다 내팽개치고 재림만 기다리는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났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쳤던 것이다. 신앙생활은 가장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직장생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이다. 물론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심각한 영적 문제, 혹은 귀신들림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에는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훈련을 받으며 말씀에만 집중해야 하는 시간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느 정도 깨닫고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직장과 공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한다. 그 현장을 발판삼아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축복을 받겠다는 비전과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가야 한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대단한 일은 못 합니다"라고 지레짐작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육신적인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시간 날 때마다 237개 나라가 있는 지구본을 30바퀴씩 휙휙 돌리며 기도한다. "하나님,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다 돌며 선교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선교를 마음껏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담대히 기도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당장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엄청난 일을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대단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며, 무조건 1등을 하고 헌금을 아주 많이 하는 것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 마음중심에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를 돕고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언약 안에서 이러한 거룩한 환상과 꿈을 꾸라는 것이다. 정 내 힘으로 못 하겠다면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면 된다. "내 자녀와 손자들, 3대, 4대로 이어지는 우리 교회 후대 렘넌트들이 이 위대한 세계복음화의 과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비전을 품고 기도조차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책임이요 직무유기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를 바라보니 너무나 훌륭한 성도들이었지만, 이처럼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후서를 쓴 것이다. 사탄은 성도들의 상태와 기질에 따라 속이는 방법이 다 다르다. 믿음의 열심이 특심인 사람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인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게 만들어 일상을 파괴하고, 반대로 육신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의 늪에 빠지게 속인다. 바울은 바로 이 두 부류의 잘못된 대상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기록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부흥의 응답을 누릴수록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응답을 받을수록, 교회에서 큰 일을 맡고 전도를 많이 할수록, 믿음이 단단해질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공격한다. 그런데 가만히 영적 원리를 들여다보면, 응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문제와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가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생명 걸고 잘 살아보려는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괴롭히십니까?"라고 부르짖은 적도 있다. 우리가 절대 상상하지도 못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런데 영적 훈련을 거듭할수록 그 하나님의 깊은 스타일을 깨닫게 되었다. '아, 죽는 날까지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나의 얄팍한 한계를 넘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큼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참된 의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 지경까지 단단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거리와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걸려 넘어뜨려 망하게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시험을 믿음의 방패로 거뜬히 이겨내고 합격하여, 그 다음 단계에 예비된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완벽한 사랑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어떠한 문제와 시험 앞에서도 절대 불신앙의 늪에 빠져 주저앉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가뿐히 뛰어넘어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1.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

사탄은 역사 속에서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왔다.

1) 첫째는 임박한 종말론으로 속인다.

(1) 몬타누스 운동 2세기의 몬타누스는 자신과 프리스킬라, 막시밀라가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종말의 임박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프리기아 지역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문제는 성경보다 자신들이 받았다는 특별계시와 예언을 더 강조한 것이다.

(2) 밀러주의 운동 1840년대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서의 2300주야를 2300년으로 계산하여 예수님의 재림시기를 정하려 했다. 결국 1844년 10월 22일을 결정적인 날짜로 제시했지만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을 대실망 사건이라고 한다.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계산으로 풀어서 재림의 날짜를 정한 것이 잘못이었다.

(3) 여호와의 증인 찰스 테이즈 러셀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 1925년, 1975년 등을 재림의 시기와 연결했지만 모두 성취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믿고 있다. 보이지 않게 임했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다(행1:11). 심지어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한다.

(4)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携擧, Rapture)가 일어난다고 날짜까지 정해서 주장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파장이 생겼고,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재림을 말하기를 꺼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마24:36).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실지, 100년 후나 1,000년 후에 오실지 그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 걱정과 염려, 그리고 먹고 사는 육신적인 걱정만 꽉 차 있다면, 그 죄와 불신앙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결코 승천(휴거)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준비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으라"거나 "빨리 재림해 달라"고 조급해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그런 것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라고 하셨다. 이어 41절에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고 하셨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밭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주님이 내려오시면 곧바로 들림 받아 올라가고, 맷돌을 갈며 일하다가 그대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중에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의 일상과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게으름 없이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항상 승천하고 휴거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완벽한 믿음의 준비를 평소에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진정한 재림신앙의 교훈이다.

(5) 신천지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지만 숫자가 넘은 뒤에도 다시 다른 기준과 설명을 제시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란다(엡2:8-9).

2) 두 번째로 사탄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사람을 속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바꾸실 수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큰 핍박을 받았다. 가족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과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었다. 예수를 믿으면 당장 돈이 생기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를 당했다고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된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한다.

3) 셋째는 의심하게 한다. 사탄은 홍해 앞에서도, 여리고 성 앞에서도 의심하게 하며,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하게 한다(마28:17). 그렇다고 객관성 없이 무조건 맹신하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평안이 없는 것이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밀한 언약과 미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앞으로 받을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4) 넷째는 유혹으로 속인다.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을 넘어뜨린다.

5) 다섯째는 변장해서 다가온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한다.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속이고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가져야 분별할 수 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흑암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 흑암이 많으면 흑암에게 속는다.

6) 여섯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창3:3) 하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창2:17)라고 하셨다. 이단들도 성경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삼위일체를 왜곡하고, 재림을 왜곡하고, 율법과 선행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오직 믿음의 복음을 흐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2. 성경적인 삶과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1) 첫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1)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6-17)" 이 말씀을 보면 황당해 보일 수 있으나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

(2) 고린도전서 15장 51-52절 사도 바울도 정확히 전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전15:51-52)" 죽은 성도와 살아 있는 성도가 모두 변화된다. 이것이 부활체의 소망이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체로 계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성도도 주님의 재림 때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3)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재림과 휴거와 심판을 말씀하셨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24:30-31)" 예수님 바로 오시면 휴거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다. 이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구원을 확실히 보장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

(4) 사도행전 1장 11절도 말씀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1:11)"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다.

2) 둘째,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복음의 바른 전통과 바른 신학 안에서 살아야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 말씀한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의 복음적인 전통을 잘 배우고 믿고 따라야 한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고전10:31), (2)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창1:1, 요1:1-3), (3)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마3:16-17, 고후1:21-22), (4)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절대주권을 믿는 것(롬8:28-30, 엡1:11), (5)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믿는 것(요일3:8, 막10:45, 요14:6), (6)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7)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 없이 보존되기 위해(살전5:23)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3) 셋째,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살전3:11-12)"라고 말씀하셨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공부를 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무너지면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며 교회에서도 문제를 만든다. 폭행하고, 중독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갈등하는 이유도 결국 내 안에 답이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재림신앙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한다.

4) 넷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1) 우리는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할 이유가 있다. (2) 우리는 전 세계에 RUTC복음문화센터를 세워야 할 이유가 있다. (3) 우리 후대가 모든 분야에서 서밋과 리더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4) 신천지와 통일교와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복음으로 살려야 할 이유가 있다. (5) 3단체를 살리고 그것을 능가하는 산업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우리 후대들이 돈을 벌고 진정으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 분명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며, 그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그려가기를 바란다. 억지로 힘들고 피곤하게 발버둥 치며 애쓰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실 것이다. 과거 다니엘과 에스더, 그리고 렘넌트(남은 자)들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비전이다. "하나님, 내가 왜 꼭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시대에 너 밖에 없다. 네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선포하시면, 그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론

사탄은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지금까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며, 철저히 망하게 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내는 그 날까지, 오직 성경적인 재림신앙과 성경적인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모습과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